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 회의일시
 - (1차) 2017. 9. 19(화) 10:00 / (2차) 2017. 9. 26(화) 10: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회의실

올해 신설된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은 공연 전 창작 아이디어 개발과 리서치, 창작준비를 위한 워크숍, 타 장르와의 협업 등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창작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창작과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적극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점 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의 지원 범위 확장과 함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창작지원사업의 틀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신규 사업,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 속에서 장르구분 없이 총 177개 단체/개인이 지원하였다. 1차 심의에서는 청년예술가 심의위원 2인을 포함한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 다원 등 총 7인의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지원신청서 및 영상 검토, 심층토론 과정을 통해 총 35개 단체/개인이 선정되었다. 2차 심의에서는 대상자별로 5분간 질의/응답 중심으로 통합 인터뷰 심의가 진행되었고 인터뷰 진행 후 심의위원 통합 심층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으로 총 28개 단체/개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작품 창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연구 과정, 단원 기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창작소스 개발을 위한 타장르/일반 시민 대상 워크숍/세미나/멘토링, 관객/참여자 대상을 특화한 창작물 제작, 창작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국제 협업 등 다양한 형식, 대상, 접근법의 흥미로운 작업들이 제안되었는데, 본 사업 심의에서는 기존의 결과 중심의 완성작품에 대한 창작지원사업과 달리 기성단체들의 공연 경력, 실적 보다는 사업 계획의 참신성과 내용, 계획의 구체성 등에 주목하여 청년 및 신진 예술가, 신생 단체들에게도 동등한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 장르 통합 심의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장르의 구분 없이 동시대 예술로서의 창의적인 시도와 실험, 도전에 기회를 주고자 했다. 또한 창작 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예술단체/예술가의 창작적 역량 강화와 완성 작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었다.

신청자들의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에 대한 낯설음과 이해 부족이 신청서와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기존 창작지원사업과 혼동하여 창작 작품 발표를 위한 사업내용을 제출한 단체들이 다수 발견되어 아쉬움을 주었다. 향후 과정 중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지원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의 3단계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본 사업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 설계와 명확한 방향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내년 2월에 진행 될 결과 공유 피칭 및 쇼케이스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예술가들의 열정과 의욕 넘치는 의미로운 창작의 과정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